

## 학습윤리와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김대군\*

### 국문초록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습에 있어서 부정’과 ‘시험에 있어서 부정’으로 인해서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더 쉽게 리포트를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러닝 시험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한 검색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책을 구입하거나 빌리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 보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중심으로 리포트를 해내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평가는 주로 리포트와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을 학습과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리포트와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다보니 대학생 스스로 평가에 대해 불신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학생들의 학습윤리, 연구윤리에 대한 자각과 실천이 절실한 때가 되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점을 따겠다거나 무임승차를 해서 학점의 덕을 보겠다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문제의식 없이 학습윤리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태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학생들에게 정도를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윤리, 연구윤리가 요청되는 상황에 대한 고찰과 학습윤리,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학습윤리, 연구윤리, 리포트 매매, 시험 부정, 대리출석

---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및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 I. 서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대학에서 이러닝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닝이 갖는 자기 주도 학습이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부정이나 리포트 매매, 학습 없는 출석체크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학습에 있어서 부정은 근절되지 않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더 지능화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리포트 매매, 대리출석, 시험 칠 때의 부정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일부는 더 정교화 되고 있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진당’으로 높이 샀던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던 직업준비를 하든 창의성을 길러야 할 학교에서 학습이 부정행위로 오염되고 있다. 그 중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 매매, 표절, 성실한 시험 준비를 무력화 시키는 족보의 생성과 배포 등 부정의한 행위가 학습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진실 되게 공부하고 자기만의 창의성을 기르고 있는 학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문제시되고 있다.

학습윤리, 연구윤리가 강조된 것이 바로 학습과 연구에서 부정행위가 만연되었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학생들의 울분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이 표절과 같은 속이는데 지능적이게 하는 범죄자를 기르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자성의 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 대학, 학회에서 연구윤리 지침들을 내놓고 있고 학생들에게 숙지시켜야 할 학습윤리에 대한 콘텐츠도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도 학습윤리의 실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몽할 수 있는 학습윤리의 기본 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부정행위를 리뷰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연구논문, 리포트 작성과 표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부정행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학습윤리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리포트 작성과 연구결과 표현도 글쓰기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리포트 작성법도 설명하고, 표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학습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유형

학습윤리는 배우고 익히는 때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는 교수와 학생, 학생들 간의 묵시적 약속이자 규칙이므로 학습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윤리는 학

생들의 품위와 인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학문적 품위(Academic Integrity)라고 하는데, 학문에 대한 진정성, 충실성, 외경심 등을 반영한 말이다. 학생들이 학문적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징벌적 정학의 사유가 된다.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학습윤리는 연구자로서 학생보다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윤리이다.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학습윤리는 중첩되어 있긴 하다. 연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연구자가 윤리를 간과한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위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보다는 동료학습자들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배우는 학생이 비윤리적인 방법들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배움이 진실 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자기계발로 인해 오히려 미래의 인재로서 몇몇한 길을 갈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배우고 익히는 데서 진실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문탐구를 하기 위해서 학습윤리에 대한 자각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고,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치고 성적을 받는 과정에 학습윤리는 적용된다.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하고 시험을 치는 것이 대학생생활에서 학습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해지는 비윤리적 행태들이 온라인 세상이 공존하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1. 출석에서 부정

대학에서 출석을 부르는 핵심이유는 직접 강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출석 때문에 강의시간에 맞추어 강의실로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을 부르지 않으면 강의보다 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강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출석을 부르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출석을 강의 듣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 평가의 한 요소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한 학기동안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학생도 출석문제에 관해서는 황금같은 이익을 챙기듯이 집착을 보이고 결석한 경우조차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열지 않던 입을 열게 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단다. 물론 정당하게 출석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고 개인적으로 보충수업을 한다면 이야기 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업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출석을 인정받고자 부당한 방법들까지 쓰기 때문에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출석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는 대출을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지각을 정당화 하거나 강의를 듣지 않고 일찍 시간 내에 빠져나가는 행동 등이 있다. 정직성을 훼손하는 것은 대출을 부탁하는 학생과 실행하는 학생이 함께 가담하는 공범 행위로서 그들 상호간에도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도 많은데 굳이 배우는 학생인데도 교수, 부모,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대출이나 하는 학생을 친구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

## 2. 과제물 작성 및 제출시 부정

대학에서 과제물은 보충학습, 자기탐구, 심화학습, 출석대체, 시험대체 등 다양한 목적에서 부과된다. 학생들은 부과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학습한 내용을 담은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제물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만이 과제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나의 과제로 다른 사람이 보충학습을 한다면 그 과제의 의미실현 자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하는 자기 탐구는 이미 자기 탐구가 아니며 다른 사람이 한 심화학습은 절대로 자신의 심화학습이 될 수 없다. 출석대체나 시험대체도 유일하게 그 자신만이 과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과제물 작성 및 제출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과제물 매매 또는 양도), 중복제출, 공동과제물에 무임승차 등을 들 수 있겠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실험, 관찰, 조사 등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얻은 결과가 없는데 허위로 결과를 만들어 보고하거나 제출, 출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험 자료를 위조하는 경우와 문헌자료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경험 자료의 위조는 실험, 관찰, 설문, 답사, 통계와 같은 경험연구에서 자신이 실제 실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경험적 연구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실험한 흉내만 내고도 전 과정에 걸쳐 실험을 한 듯이 꾸미거나 인터넷 자료나 남의 사진으로 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지를 돌리지 않고 혼자서 또는 몇 사람에게 시켜서 작성해내는 것, 원하는 문항에 체크를 해서 통계를 내는 등의 유형들이 있다. 문헌자료의 위조는 주로 문헌연구에서 원 자료를 인용할 때 자기주장을 위해서 원문에는 없는 단어나 구절, 문장을 넣어 원저자의 권위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과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바꾸기도 하고 성과물을 퇴색시키는 데이터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 등을 하게 된다.

경험 연구에서 변조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실험, 설문, 답사, 통계 등을 바꾸거나 삭제해서 원하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는 행위이다. 주로 수치를 바꾸거나 삭제하여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문헌연구에서도 원자료의 내용을 연구자의 논지와 어긋나면 원자료의 전체나 일부를 자신의 논

거로 삼기위해 변조를 하게 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결과물이 아닌데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남의 것인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표절행위이다. 표절의 본래 의미는 빼앗고 도둑질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로 타인복제 표절, 자기중복표절, 출처 은폐 표절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병기 교수는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가. 출전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방법론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사용, 나. 다른 단어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문장의 구조나 전개방식을 모방, 다. 출전표기 없이 정보나 자료를 사용(표, 그림, 슬라이드, 컴퓨터 프로그램도 포함), 라.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되거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적·사회적·자연적 사실을 출전표기 없이 인용, 마. 출전표기를 했더라도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바. 다른 사람의 글들을 짜깁기한 경우로 구체화 하고 있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학생들이 침해하는 저작권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겠고, 저작권이 없는 표절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학습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지만, 출전을 밝히더라도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표절이 될 수 있다.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로서 학습윤리 측면에서 보면 대리작성이나 구매행위가 많다.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대리작성 사이트나 리포트 구매사이트를 활용하여 구매하여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수정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판매자는 이전 학기에 A받은 리포트라는 것을 주로 강조하지만, 해당학기에 자신의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 학기의 리포트를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매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터넷 리포트 판매 사이트에는 A+받은 리포트, 중간고사 대체과제물, 강의전체요약정리, 강의내용 정리파일 등의 판매자료가 있

\* 정병기(2007), 『서울대학생 글쓰기 윤리교육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무처 정책연구 2007-12, 제5장.

고, 구매평이 나와 있다. 리포트가 나가면 학생들은 유사한 리포트가 있는지를 검색해서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서평, 독후감, 영화감상 등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써야 하는 것부터 여러 논문이나 책을 활용해서 학습해야 하는 것 등이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리포트 판매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학생들이 리포트 사이트에서 구매한 자료를 모델로 삼아도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처음부터 그대로 활용하고자 구입을 하니 문제라 하겠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는 큰 죄를 짓는 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조차 리포트 사이트에 죄책감 없이 업로드 하니 개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은 올리고 판매액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후배들이 거짓된 학습과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하면서도 리포트를 베끼거나 짜깁기를 하든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매할 정도의 리포트를 작성한 학생이라면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고, 미래의 유망주라고 볼 수 있는데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부정에 가담하고, 후배들을 거짓되게 이끄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다운을 받아서 리포트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업로드 하는 선배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선배답지 못한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포트 사이트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한 사람의 실명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리포트 제공사이트 운영자는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학생의 소속대학만 밝혀 더욱더 정교하게 부정행위를 하도록 도울 것이 아니라 실명제를 도입해서 리포트 판매와 구매가 학습 윤리에 어긋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매매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비해서 도서관에서 책이나 논문을 대출해서 그대로 베껴서 내는 사례도 많다. 대출이 안 되는 책의 일부를 오려가서 그대로 베낀 후 표지로 위장을 해서 자신의 창작물인 양 자신의 이름으로 리포트를 제출하기도 한다.

⑤ ‘중복제출’은 특정 과목에서 제출한 리포트를 다른 과목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 수정을 하거나 짜깁기를 하더라도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리포트를 작성해야 함에도 마치 그 과목을 위해서 새로 작성한 것처럼 활용하는 것으로 자기표절에 해당하기도 하고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이중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속임수에 해당된다.

자기 표절은 주로 가. 전문(全文) 중복 제출, 나. 구성이나 문장을 변경하여 제출, 다. 서론이나 결론을 변경하여 제출, 라. 두 개 이상의 글을 하나의 글로 합쳐서 제출, 마. 자료와 내용의 보완 없이 일부를 다시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자기의 기존 글을 활용하여 개별성과 창의성이 있는 글이 된다면 자기표절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 그런데 자기표절을 하는 위와 같은 유형에서 대부분은 저자들은 독창적인 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글을 활용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⑥ ‘공동 과제물에 무임승차’는 노력은 하지 않고 혜택은 받으려는 사고와 행동이다. 팀

\* 정병기(2008),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 방안,” 『사고와 표현』 제1집1호(창간호), pp.267~294.

별 발표나 과제제출이 있는 경우 구성원 모두 실험, 관찰, 연구, 과제물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팀원으로서 몫을 하지 않고 결과물만 공유한다면 무임승차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무임승차적 행위는 말 그대로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타는 행위로 비용, 노력, 고통 등을 분담하지 않고 성과만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만일 다른 팀원의 양해를 구했다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 이기주의적인 행동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학습활동은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결실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팀원이 산출한 결과물에 자신의 몫을 더하여 전체가 자신의 것인 양 부풀리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이러한 학생들로 인해 고통의 공정한 분배, 결과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 3. 시험에서 부정

대학에서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중심축이고 과목에 따라 수시고사, 쪽지시험, 퀴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 시험이지만 시험의 결과에 따라 성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시험이다. 시험이 공정해야 자신의 성취도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학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학습자로서 범할 수 있는 악행 중의 악행이라 하겠다. 대학에서의 시험 부정행위가 중·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시험을 치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드러내지 않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받은 행위들이 있다. 남의 답안을 몰래 보거나 공유하는 행위, 허락되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 와서 몰래보는 행위, 인터넷을 활용해서 검색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대리 시험을 부탁하거나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 등이 있다. 부정행위로 시험을 보는 것은 학습자의 정직성, 성실성,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등에 위해를 가하고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성취를 빼아가는 행위로 부도덕한 존재로서 자존감도 해치고, 사회정의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

학생들이 출석을 해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내고, 시험을 치는데 학습윤리가 적용된다. 학생들이 학문적 품위를 잃게 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서 자격을 잃게 되거나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학습윤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습윤리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 자료를 제공하여 시작부터 학습의 충실성

\* 전북대는 전공 시험지를 빼돌려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공유, 집단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에게 정학처분을 내렸다. 학부 사무실에서 근무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중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곧바로 같은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 집단커닝” 사건 가담 학생들 최고 '무기정학’, <http://news.joins.com/article/19457084>, 검색일 : 2016년 1월 22일.

을 지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의시작 전, 과제물 제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도 학습윤리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자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 Ⅲ. 연구윤리에서 연구 성실성 요충

연구 윤리(Research ethics)는 윤리학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윤리 원칙들을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연구윤리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윤리 규범이다. 연구는 개인의 몫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산출이기도 해서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사회규범에 어긋난 연구에 대한 규제는 강제적 규범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기준에 따라 법률 등의 형태로 대상을 규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율적 규제로 연구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연구의 속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다. 내부윤리 규범 즉, 연구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윤리 기준이 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것은 과학 분야에서 연구 역할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있다. 과학 연구가 산출해 낸 결과물들이 군사무기, 환경오염, 위험과학 등의 형태로 사회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과 과학단체들이 과학 활동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학연구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정부, 비정부조직, 일반시민들 역시 과학의 윤리적 실행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과학 활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례 없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학연구에서 윤리문제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과학 연구에서의 객관성 유지문제이다. 이것은 과학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하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충실한 연구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속임수, 부주의, 실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혹은 이론 틀)를 날조, 변조 내지 표절한 기만행위의 경우가

\* 가톨릭대학교는 교양교육원에서 학습윤리를 준수하며 과제물을 작성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톨릭대학교 학습윤리 가이드북에 담고 있다.

\*\* 김대균, 『공학윤리』(서울 : 형설출판사, 2003), pp.107-108.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과학 활동에서의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기만행위가 생기고 있다.

둘째, 발표 시의 저자 표시 및 공로 배분의 문제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논문 작성시 실질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하고 이에 따라 저자 표시를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연구 참여에 대한 정당한 공로는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예우 차원에서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주장들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셋째, 실험실 내에서의 권위 및 차별의 문제이다. 과학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험실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둘러싼 문제이다. 지도교수-대학원생의 관계, 성희롱, 기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 연구윤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 연구원의 채용 및 고용, 이용 가능한 자원(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의 공평한 배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넷째, 특정한 대상이나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연구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생명공학, 유전자 공학 등 특정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문제로, 두 가지 주요 문제는 인체 대상 실험과 동물 실험의 윤리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관련 연구가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인지, 그리고 피실험자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동물을 대상을 하는 경우는 실험동물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충분히 기울여졌는지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외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복제문제, 유전자치료와 얽힌 우생학적 쟁점, 인간유전자 특허, 인간 유전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전문가로서의 과학자(집단)가 사회 일반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가.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에서 연구비를 애초 정해졌던 용도대로 적절히 이용했는지의 문제, 나. 공공성에 반하는 산업연구 및 군사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의 윤리 문제, 다. 과학자들이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외부에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할 책임에 관한 문제 등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가.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연구의 성실성 위반은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위조, 변조로 주로 나타나고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주로 표절(剽竊)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학연구에서의 윤리의 쟁점들은 현재진행형에 있다. 실험, 관찰을 통해 언제나 새로운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과학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 유혹으로 넘어가게 한다. 연구의 성실성 위반이 과거에 비해서 사 이버시대에는 더 쉽게 드러나고 있다. 내부고발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 비해 인터넷의 발달로 내부고발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연구 윤리는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할 것 없이 성실성과 책임을 묻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개인적인 가치관도 바로 정립되도록 재산권, 저작권, 표절 등에 대한 지적, 정의적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 IV. 학습과 연구에서 출처 표시와 인용의 실제

### 1. 출처를 바르게 표시하는 방법

리포트를 작성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절 중의 하나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윤리적 행위자로 간주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 첫째 나의 글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주관적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객관화 할 수 있다. 둘째, 출처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를 밝혀줌으로서 선행연구에 대한 지적 권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나의 글로서 불충한 경우 출처의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2010). 「가톨릭대학교 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북」. pp.28~35.

출처를 표시는 크게 보면 주석과 참고문헌을 통해서 하게 된다. 주석에는 본문의 문장 끝에 괄호를 쳐서 표시하는 '내주'가 있고, 주가 필요한 본문 밑에 본문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각주(footnote)'가 있다. 각주와 내용은 같지만 본문 밑에 두지 않고 글의 맨 끝에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주석을 미주라고 한다. 참고문헌은 주석에서 제시된 참고 자료(저서, 논문, 기사 등)의 목록으로, 글의 맨 끝에 규칙에 따라 정리해 놓는데, 미주가 있는 경우 미주 다음에 본문과 분리해서 정리하면 된다.

주석과 참고문헌은 학문분야에 따라 작성 규칙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정확한 규칙은 각 학회지의 작성방법을 따르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국윤리교육학회 투고 규정\*을 기본으로 사례로 하되 일반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 주석에 의한 출처 표기법

(1) 저서의 경우: 저자, 『책 제목』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pp. 00-00.

가. 동양서 : 박재주, 『동양의 도덕교육 사상』 (성남: 청계출판사, 2000), p. 25.

나. 서양서 : P. Foot, *Virtues and Vices* (Oxford: Blackwell, 1978), p. 20.

다. 번역서 : 윌리엄 K. 프랑케나, 문정복 역, 『윤리학』 (대구: 영남대출판부, 1982), p. 10.

(2) 논문의 경우 : 저자, 「논문 제목」, 『책·학회지·잡지 제목』 통권호수(발행처, 출판연도), 인용한 페이지.

가. 동양논문 : 박장호, 「Aristoteles의 실천적 지혜와 도덕교육」, 『윤리교육연구』 6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04. 10), p. 148.

나. 서양논문 : 글쓴이, “논문 제목”, 학술지명, Vol.○○, 출판연도, 인용한 쪽 수.

다. 책 속의 논문 : D. Carr, "Character Education as the Cultivation of Virtue", Larry P. Nucci, Darcia Narvaez, 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8), p. 00.

라. 학술지 속의 논문 : D. Carr, "On the contribution of literature and the arts to the educational cultivation of moral virtue, feeling and emo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34 (2005), p. 00.

\* 학술단체를 표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알려진 경우, 그 명칭을 ( ) 속에 넣지 않을 수 있음.

(3) 고전 인용 시(필요시 원문 제시)

---

\*한국윤리교육학회(2016),

“논문작성지침”,

『윤리교육연구』,

[http://www.keea.info/bbs/zboard.php?id=sub\\_03\\_07](http://www.keea.info/bbs/zboard.php?id=sub_03_07)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157-176.

가.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3월 기미: (필요시 ‘:’ 표시 후 원문 제시)

나. 『論語』學而: (필요시 ‘:’ 표시 후 원문 제시)

(4) 이미 다룬 자료 활용 시

가. 박장호, 앞의 논문(또는 책, 자료), p. 25: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자료 인용시

나. 위의 논문(또는 책, 자료), p. 00: 바로 위의 같은 자료의 다른 페이지 인용시

(5)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날짜, 면 수를 제시

가.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날짜, 면수.

(예) ""안좋은 소문 날까봐 성희롱 2차피해 신고 꺼린다", <진주일보>, 2016년 1월 21일 제 16면.

(6) 인터넷 매체의 기사인 경우: 기사 제목, 매체이름, 작성 일시, 사이트 주소, 접속 일자를 제시.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 일시, 사이트 주소, (접속 일자).

(예) "직장인 여성 40% "성희롱 당해도 말 못한다"", <데일리안>, 2016년 1월 21일.<<http://www.dailian.co.kr/news/view/551773>> (2016.1.24. 검색).

(7) 사전류의 경우: 항목, 이름, 사전 이름, 출판사, 출판연도를 적어 줌.

「항목이름」, 『사전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예) "도가머리", 『민중국어사전』, 민중서림, 1999.

## 2) 참고문헌 작성법

(1) 해당 면에 논문 전체의 일련번호를 다는 각주 외에,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논문 말미에 모든 문헌을 일괄 배열하여 첨부하는 형식을 취한다. 배열 순서는 한글 문헌은 외국 문헌 앞에 위치시킨다.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주석의 경우와 같고 단행본인 경우 인용한 쪽 수를 명시하지 않으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참고 논문이 차지하고 있는 페이지를 기입한다.

(2) 단행본: 저자 이름, 『제목』(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① 저자이름: 서양인도 동양인과 마찬가지로 성(last name)과 명(서양인의 경우에는 first name과 middle name의 첫 자까지)의 순서로 쓰되, 서양인들의 공동 저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의 성명만 위와 같이 쓰며, 두 번째 저자부터는 ‘명과 성’의 순서로 기재한다.

② 책제목: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책인 경우에는 『 』 표를 붙이고, 영문과 기타 외국어 책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발행지 및 출판사: 발행지는 도시 이름만 쓰되, 만약 도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 이름을 기재한다. 발행지 다음에는 콜론(:)을 넣고 출판사 이름을 표기한다.

예1) 박재주, 『동양의 도덕교육 사상』(성남: 청계출판사, 2000).

\* 동일연도 내 복수 문헌 시, 2000a, 2000b, 2000c 식으로 구분한다.

윌리엄 K. 프랑케나, 문정복 역, 『윤리학』 (대구: 영남대출판부, 1982).

Foot, P., *Virtues and Vices* (Oxford: Blackwell, 1978).

Heidegger, M., *Sein und Zeit*, 12. Aufl.(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72).

예2) 고전(경전 및 실록류) 및 고문집

『高麗史』

『太宗實錄』

『論語』

李滉, 『自省錄』: 경전/실록이 아닌 기타 문집 중 널리 알려진 자료는 상세서지  
내용 생략 가능

### (3) 논 문

① 학회지·잡지에 실린 논문: 저자, 「논문 제목」, 『학회지·잡지 이름』 통권 호수  
(발행처,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② 잡지가 주간, 월간, 계간일 경우 계절, 연도순으로 표시.

③ 신문의 경우: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날짜, 면수.

④ 편집된 책의 논문: 논문 작자, 「논문 제목」, 편자 이름, 『책이름』(발행지: 출판사, 연도).

학위논문 : 윤혜경 . 확장적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한 중학생의 탐구 동기 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9)

인터넷 매체의 기사인 경우: 기사 제목, 매체이름, 작성 일시, 사이트 주소, 접속 일자

예) 박장호, 「Aristoteles의 실천적 지혜와 도덕교육」, 『윤리교육연구』 6집(한국윤리교육학회, 2004. 10), pp. 147-181.

도성달, 「거시윤리학의 이념과 원리」, 도성달 외, 『거시윤리학』(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pp. 63-79.

Carr, D., "Character Education as the Cultivation of Virtue", Larry P. Nucci, Darcia Narvaez, 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8), pp. 99-116.  
Carr, D., "On the contribution of literature and the arts to the educational cultivation of moral virtue, feeling and emo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34 (2005), pp. 137-151.  
Popper, K., "Über die Möglichkeit der Erfahrungswissenschaft", *Ratio*, Vol. 1 (1957/58), pp. 00-00.

- \* 참고문헌에서 논문의 경우, 각주 속의 논문과 달리 게재지 및 책자의 시종(始終)을 표기함.
- \* 학술단체를 표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알려진 경우, 그 명칭을 ( ) 속에 넣지 않을 수 있음.

#### (4) 인터넷 자료의 경우

①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 사이트 명만 쓰지 않고 참고한 자료가 있는 사이트 전체 주소를 모두 표기한다. 끝 부분에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home.pusan.ac.kr/~keea/research/550551.html>, 검색: 2009.4.30)

## 2. 인용을 바르게 하는 방법

리포트나 연구논문을 쓸 때 남의 글을 가져와서 내 글을 작성해가는 경우에 이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인용한 것에 대해 해석을 가하기 위해서거나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의 글을 끌어오는 것이다.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인용이 있다. 직접인용은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 오는 것이고, 간접인용은 원문을 논자의 말로 녹여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1) 직접인용의 방법

직접인용을 할 경우, 인용할 부분을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면 된다.

매리노프(Louis Marinoff)는 가벼운 증상에 대한 과도한 병리치료의 부작용을 경계하며, 윤리적 접근이 없는 철학상담의 무익함을 강조한다. “인간정신에서 도덕적 본성과 그 관계에 대한 특별한 견해를 취하지 않는 철학 상담자는 별 소용이 없다. 현재의 과학지식과 기술능력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재는 윤리상담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라고 본다.

직접인용문이 타자 세 줄을 넘으면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든다.\* 원래 출전의 문단 구분은 인용문에서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 이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출처만 밝히면 된다.

다음은 어느 일간지에 실린 기사이다.

최근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답안지를 유출돼 100명의 학생이 제시함을 보는 말썽을 빚은 가운데 전북대학교에서도 기말고사 집단 부정행위 사건이 대자보에 올라와 대학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 11일 전북대 교내 한 전자공학과 건물에 "학생회 임원 6명이 조직적으로 교양과목 기말고사 중 조직적으로 집단커닝을 했다"는 대자보가 붙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대학에서 커닝 문제는 사례의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2) 간접인용의 방법

간접인용을 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디까지가 인용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저자의 생각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인용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이때 인용된 부분의 내용을 저자의 말로 녹여서 서술하더라도 본래의 관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일상식에서 보여지는 제주 식문화의 특징에 대한 오영주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절에 나는 식재료에 의존하여 다양하게 요리를 한다는 것이다. 제주인들은 만들 요리를 생각해서 식재료를 미리 구입하거나 메뉴계획을 세워서 조리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때그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상황에 맞게 조리해서 먹는다. 이는 제주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연중 따뜻하므로 산과 들 해변과 바다에 신선한 식재료가 산재해 있어 때와 철에 따라서 식재료를 십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재인용의 방법

---

\* R. Lahav, Maria da Venza Tillmanns 저, 정재원 역, 노성숙 감수,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3), pp. 247-248.

\* 움베르트 에코, 김운찬 역, 논문 잘 쓰는 방법, (서울 : 열린 책들, 2001), p.231.

\*\* "전북대 '집단커닝 사건' 대자보, 온라인서 확산. 망신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210547415254>. 검색일자 : 2016.1.22.

\*\*\*오영주, "제주 향토음식 문화와 관광상품화 방안",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21주년 제 1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999. 11. 12), pp. 39-40.

직접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하게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재인용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경우 정직하게 '재인용'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 라르머(Robert Larmer)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를 '최상의 이익' 을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

- ① 충성심은 상대방의 최상의 이익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서 그를 대해주는 것이다.
- ② 범법 행위와 같이 부도덕한 행동은 절대로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없다.
- ③ 내부고발은 상대방의 부도덕한 행동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 ④ 내부고발은 오히려 부도덕한 행동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충성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 Robert Larmer, "Whistleblowing and Employee Loyalty" in *Taking Sides : Clashing Views on Controversial Issues in Business Ethics and Society* by Lisa H. Newton and Maureen M. Ford. p.189 ; 김형철, "내부고발자의 도덕성 고찰",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53호, 2002. p.182. 재인용.



## V. 결론

대학에서 학생들의 컨닝으로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사례는 수시로 생긴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집단 컨닝으로 물의를 빚자 시험감독이 없는 시험인 ‘아너코드(Honor Code)’를 도입했다. 아너코드는 집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명예 규약, 또는 명예 강령이라고 볼 수 있다. 규약 또는 강령의 형식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다짐하는 것으로서 법보다는 윤리에 가까운 것이다. 자율적으로 명예를 지키고자 다짐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만 아너코드가 우리사회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학기 마다 화제에 오르는 대학가의 컨닝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시험과 과제물 제출, 출석 등 학교생활 전반에 학습윤리로서 아너코드가 자리잡는다면 더할 나위없겠다. 그러나 무감독 시험을 칠 때조차 컨닝을 안할 정도가 되려면 학생들 간의 부정에 대한 반감을 갖는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도 부정에 가담하지 않지만 다른 학생들이 부정에 가담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내부고발이 자리잡으면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 구성원 상호간의 통제력으로 인해서 컨닝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컨닝을 막기 위해서 몇 명의 감독관을 배치해도 시험을 치는 당사자들만큼 들추어 내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컨닝을 하는지는 제일 잘 안다. 따라서 학생들이 내부고발에 적극 가담하면 어느 누구도 선불리 컨닝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상하에서 집단 컨닝이 발생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함께 컨닝을 하거나 컨닝을 눈감아 주는 것을 마치 미덕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내부고발에 대한 몰이해가 부정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선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험, 과제물, 출석에 있어서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는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예전처럼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절을 체크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고, 대리출석을 할 수 없도록 전자출석을 도입한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의를 위한 망이 촘촘하게 마련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너코드가 자리잡아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 부정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자부심, 자존심으로 여기는 학생들의 개인윤리가 바로서야 될 것이다.

아너코드가 자리잡기 어렵다 하더라도 비관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습윤리교육을 학기 전에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학습윤리 어긋나기 않는 글씨기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남의 아이디어나 글을 가져올 때는 가져왔다는 표시를 하면 된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어느 부분이 가져온 것이고 어느 부분이 자신의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전거를 밝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의 논거로 삼고, 다른 사람이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다.

출처를 밝힐 때는 저자, 발표한 때, 제목, 만들어 낸 곳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명, URL 주소와 검색일을 표시하면 된다. 주를 달거나 참고자료를 표기, 정리하는 방법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유사하기 때문에 숙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구체적인 것은 학문영역에 따라 대표적인 학회들의 지침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하겠다.\*

---

\* 정병기,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 방안,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사고와 표현』 제1집 1호(창간호, 2008.), pp.267~294.

## 참 고 문 헌

- 김대군(2003), 『공학윤리』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선태 외 2인(2011),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사용 지도서. 서울: 교학사.
- 김형철(2002), “내부고발자의 도덕성 고찰”,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53호.
-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2010). 「가톨릭대학교 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북」.
- R. Lahav, Maria da Venza Tillmanns 저, 정재원 역, 노성숙 감수(2013),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오영주(1999), “제주 향토음식 문화와 관광상품화 방안”,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 제주학회 21주년 제1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pp. 39-40.
- 움베르트 에코, 김운찬 역(2001), 『논문 잘 쓰는 방법』 서울 : 열린 책들.
- 정병기(2007), 『서울대학생 글쓰기 윤리교육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무처 정책연구 2007-12.
- 정병기(2008), “대학생 글쓰기의 부정행위와 윤리 교육 방안,”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사고와 표현』 제1집1호(창간호).
- “'전북대 집단커닝' 사건 가담 학생들 최고 '무기정학'”,  
<http://news.joins.com/article/19457084>, 검색일 : 2016년 1월 22일.
- “전북대 '집단커닝 사건' 대자보, 온라인서 확산. 망신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210547415254>. 검색일 : 2016.1.22.
- 한국윤리교육학회(2016), “논문작성지침” .  
『윤리교육연구』 [http://www.keea.info/bbs/zboard.php?id=sub\\_03\\_07](http://www.keea.info/bbs/zboard.php?id=sub_03_07),  
검색일 : 2016.10.30.

## Abstract

### A Study on Studying Ethics and Research Ethics Education

Kim, Dae Gun

Studying and research ethics of students have not been well established. There are a lot of injustices in report creation at university. And status of university is shaken by injustice in test. Students could sell and buy report easily at the Internet. Therefore, students do not make report by themselves and they feel seduction that wish to buy or copy report.

Evaluation is made in report and test mainly at university. Because there are a lot of cheats in report and test, students have little trust in the evaluation system. Students receive helping of internet search through friends in e-learning test. Methods of cheating were more various.

Professors must teach students studying moral principle. The research ethics has to be properly learned. When students make report, students must have moral principle solemnity. Students must not do injustice in attendance and test. I will investigate about situation that studying moral principle is requested. I will suggest studying moral principle educational necessity.

**key words: Studying moral principle, research ethics, report transaction, test impropriety, representation attendance**

논문 투고일: 2016. 11. 30.

심사 완료일: 2016. 12. 08.

게재 결정일: 2016. 12. 10.